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외로움

-성과 학교구분에 따라-

안 순 옥*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사회적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청소년의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방책을 가족체계 내에서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7곳과 소년원 1곳에서 표집한 809명의 남·여 청소년이다.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백분율, t-test와, ANOVA, 사후분석으로는 Tukey검증, Cronbach- α , 상관관계 및 중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남학생의 학교유형(일반 남학생과 소년원수감 남학생)에 따라 가족체계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에 따라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은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 아버지와의 응집성, 가족의 분화, 가족의 융통성 순으로 설명되었고, 여학생의 친밀감 부족 외로움은 아버지와의 응집성, 가족의 분화, 부모·자녀 세대간 명확한 경계 순으로 설명되었다. 남학생의 사회적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은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와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여학생의 사회적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은 가족의 융통성,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설명하였다. 소속감 부족 외로움은 남학생의 경우 가족의 융통성이,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낮을 때 높았다.

셋째, 일반 남학생과 소년원수감 남학생의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 남학생의 경우 가족의 분화, 아버지와의 응집성, 가족의 융통성이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설명했고, 소년원수감 남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가 친밀감 부족 외로움을 설명했다. 일반 남학생의 사회적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은 가족의 분화와 아버지와의 응집성이 설명했고, 소년원수감 남학생의 사회적관계 지지망 부족 외로움은 가족의 융통성, 부모·자녀 세대간 경계, 부모간 갈등해결의 영향을 받았다. 가족의 융통성은 일반 남학생과 소년원수감 남학생의 소속감 부족 외로움을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성과 일반 남학생과 소년원 남학생의 학교구분에 따라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제외한 가족체계의 모든 하위 변인들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친밀감 부족, 사회적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 외로움은 각기 상이한 가족체계의 변인들로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체계 및 청소년의 외로움을 다차원적으로 나누어 평가한 본 연구의 목적이 타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